

「세이와주쿠」 전국조직화 취지서

기업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사원을 포함한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바라기 때문에 매일 최선을 다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을 일으키거나 계승하여 그 정점에 섰을 때부터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자신을 포함한 전 종업원이 받을 비참함을 상상하여 밤낮으로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불안과 초조함을 안고 필사적으로 경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후 45 년을 지나 지금까지 순조롭게 성장 발전을 계속해 온 일본 및 세계 경제도 1990 년대 초부터 드디어 구조적인 전환기에 들어섰습니다. 20 세기 말을 목전에 두고 세계는 파란과 격동의 시대에 돌입하려고 하는 만큼 경영자로서는 더 한층 정신을 차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4 년간 세라믹 연구자로서 지낸 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2 년 전에 28 명으로 교세라 주식회사를 일으킨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업경영에 심혈을 기울여서 왔습니다. 현재 교세라는 국내·해외를 합쳐서 종업원 총수 26,000 명, 연간 총매출 5,000 억엔, 전기통신사업을 포함한 다이니덴덴 주식회사는 종업원 1,500 명, 연간 매출 1,500 억엔으로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저는 창업 당시부터 기업경영은 그 경영자가 가진 철학, 마음, 이념, 신념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여, 경영자로서 자신의 인격을 닦고 마음을 높여, 보다 높은 사상을 갖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업경영도 인생의 발자취도 모두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의 과거 경험으로 보아 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부터 7, 8 년 전에 교토의 젊은 경영자들로부터 같은 경영에 종사하며 고민해 온 인간으로서 어떻게 경영을 해야만 할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 거듭 부탁받는 동안에 저 자신도 교토라는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오늘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다소나마 그 답례로서의 볼런티어로 제 경험을 전해 가는 것은 젊은 경영자 분들의 참고도 되고, 나아가서 일본 경제,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교토에 있어서 경영이념, 인생관을 공부하는 자발적인 젊은 경영자의 모임 「세이와주쿠」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쿠의 분교를 만들기 시작하여 오사카, 고베, 시가, 가고시마, 도야마, 도쿄, 계 7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부터 젊은 수강생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듣고, 마치 해면이 물을 빨아들이듯 흡수하고 실천하여 실제 경영에서 큰 효과를 올리고 있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해 왔는데, 최근 들어 많은 수강생들로부터 자기들이 속장의 경해를 접해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전국에는 더 많은 젊은 경영자들이 있어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기업 경영자가 더욱 훌륭한 경영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 시간의 제약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환갑을 맞이하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미흡하나마 제 경영이념, 인생관을 이야기함으로써 많은 젊은 경영자 여러분들의 인격과 마음을 높여, 그 결과 각각의 기업이 번영하고 종업원이 행복하며, 나아가서 세계 인류가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경영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길 생각하며, 여기에 수강생의 추천도 있어 젊은 경영자 5,000 명에 의한 「전국 세이와주쿠 조직화」를 결심하게 된 바입니다.

경영의 요체는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자가 가진 마음에 있습니다. 경영의 진수를 깨우쳐 경영자의 마음이 바뀌면 반드시 경영은 순조롭게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인덕을 높여, 기업의 안정과 융성을 희망하시는 분의 모집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1991년 세이와주쿠 속장 이나모리 가즈오